

## 9월 20일 축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020-9-19

### 루카9,23-26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 과 관련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고 싶은 모든 이가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왜 필요한가? 인생에는 왜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은 신비입니다. 어쩌면 하느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즐거웠다면, 그분을 따르거나 그분을 따르는 기쁨을 위해 그분을 따르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부자인 여자와 사랑을 위해 결혼한다면, 누군가는 항상 자신이 돈을 위해 결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돈이 없는 여자와 결혼했다면, 사랑을 위해 결혼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예는 좋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불편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심각한 재난, 심각한 고통스러운 병, 경제 재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의 불편함이나 함께 사는 일상에서 매일 십자가를 찾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예기치 않은 계획 변경, 사람의 어려운 성격, 가장 필요할 때 고장 나는 작업 도구, 추위 또는 열 또는 소음, 오해, 그날 근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경미한 질병으로 인한 불편함 ...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작든 크든 십자가는 평화와 기쁨을 안겨 줍니다.

...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목숨을 잃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부를 얻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나무십자가를?”“제가 현미경에서 눈을 뗄 때, 제 시선은 검고 텅 빈 십자가를 응시하게 됩니다. 몸이 달리지 않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곤해 막 일을 포기하려고 할 때, 저는 다시 현미경에 눈을 대고 일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운 십자가가 그걸 지고 갈 두 어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성 호세마리아, 길 277)

...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 현데 사회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각 사람은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을 표현합니다. 진리를 처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가족에 대한 생각,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직업적인 정직, 결혼 생활, 교육의 자유, 인간의 삶, 순결의 아름다움 등에 대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신중함이나 자선을 위해 닥쳐야 하지만, 겁쟁이 때문이 닥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이미지를 어디 듣지 반영하고 싶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은 경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산희 신부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9weol-20il-juil/> (2026-1-25)